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6 May 2002 (morning)
Lundi 6 mai 2002 (matin)
Lunes 6 de mayo de 2002 (mañana)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Text handling).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Lecture interactive).
- Répondre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requeridos para la Prueba 1 (Manejo y comprensión de textos).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 알립니다 ●

제62기 견습기자 모집

취재·편집... 18일 접수마감

한국일보사는 제 62기 견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은 한국일보 일간스포츠의 취재와 편집입니다. 창의력과 의욕을 갖춘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 모집요강

▲ 제출서류 ①입사지원서(본사 소정양식)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②최종학교 전학년성적증명서 1통(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성적 포함) ③1998년 1월 이후 응시한 토폴(550점 이상) 또는 토익(750점 이상) 성적표 1통 ▲ 마감: 2월18일

(금) 오후 6시 ▲ 교부처: 본사 1층 안내데스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사 ▲ 접수처: 본사 4층 인사부 ※인터넷·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월24일(목) ▲ 기타 ①입사지원서의 근무희망신문명, 지원분야, 자기소개란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②2차 시험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③합격자는 한국일보 일간스포츠와 hk인터넷(www.hk.co.kr)을 통해 발표합니다

★문의=한국일보 인사부 (02) 724-2601~2 한국일보사

● 전형방법 및 응시자격

전형방법	응시자격
1차 서류전형	①4년제 대졸자 및 2000년 2월 졸업예정자
2차 필기시험(국어 작문 상식)	②남자는 1972년, 여자는 197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3차 면접	③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4차 인턴실습(2주)	④토폴 550점 또는 토익 750점 이상 성적소지자

본문 B

1 회 용 품 오늘부터 못쓴다

예식장·喪家는 허용

22일부터 음식점과 유통점의 종이컵·나무젓가락·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결혼식·회갑잔치·상가(喪家) 등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은 계속 허용된다. <표 참조>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관계법 시행규칙을 이 날짜로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업소는 3개월간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다시 어기면 1회 위반 때마다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

1 회 용 품 사용규제 내용

업소	사용금지	사용가능
음식점·유통주점	나무 이쑤시개(출입구에만 비치), 컵(종이·합성수지)접시 및 용기(종이·합성수지·알루미늄박)나무젓가락, 합성수지 수저·포크·ナイ프 *과로연식·장례식장 제외	녹말 이쑤시개, 빨대·커피 찻는 막대, 햄버거·수저용 종이, 물휴지·물수건, 종으로 만든 깔개, 1회용 설탕·크림·케첩
유통점 (50명이상)	비닐 및 종이봉투, 쇼핑백(손잡이 있는 것·유상판매가능) *10~49명은 시·군·구 자율	생선·육류·두부 등 물기있는 제품담는 합성수지 봉투, 채소·과일용 합성수지 봉투
식품제조·가공업(도시락업체 포함)	합성수지제 도시락(밥 및 반찬용기)	국·물용 합성수지 용기
목욕탕·숙박업소	면도기·칫솔·치약·샴푸 (유상판매 가능)	면봉
패스트푸드점	수거·재활용률 90%미만때 사용금지	현행과 동일

<자료=환경부>

게 된다. 단속은 각 지자체(시·군·구)가 실시하며, 시민단체도 일정기간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

양영유 기자

< yangyy@joongang.co.kr >

본문 C

할머니의 시집은 불씨를 떨어뜨렸다가는, 쫓겨가게 된다는 시집살이였다. 불씨래야 산에서 굵어 온 갈퀴 나무로 땀 불이니 불들을 꼭 눌러 두어야지 화젓가락으로 해쳤다가는 당장에도 재가 되어 버리는 재불이었다. 종일 담뱃대를 놓지 않는 시아버지는 꼬다리를 화로에 꼭 박고 (29) 빨아서 불을 붙인 다음에 또 불손으로 (30) 눌러 두어 꺼뜨리는 일이 없는 시아버지였다.

사랑방에도 부엌에도 재불화로의 불씨가 끊어져서는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었다. 신랑보다도 대감님보다도 고이 모시기에 머리가 빠질 지경이었다. 하루 아침 그 불씨가 꺼져서 할머니는 간담이 서늘했다. 호호 불어도 (31) 불어도 불이 일지 않는 것이었다. 큰일났다. 살그머니 뒷집으로 가서 불씨를 얻어왔다. 그것을 시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뵈히 보고 있었다. 본가로 가라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옷을 갈아 입고 하직 인사를 하러 들어 가서 의젓이 말을 했다.

-----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만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 억울한 사정? 그게 무슨 소리냐?

----- 사실은 뒷집에서 불씨를 얻어온 것이 아니라 엇저녁에 빌려준 것을 오늘 아침에 받아온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얼굴이 풀렸다.

----- 그랬더니! 하마트면 내가 실수를 할 뻔 했구나!

속으로는 무릎을 쳤다는 것이었다. 그만한 국량과 주제가 있는 며느리라면 불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박데기는 면했다.

어머니는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들은 첫 마디가

---- 불 조심해라! 이었다.

살림이 넉넉해져서 나무는 사다가 때었다. 산에서 솔가지를 베어서 두 아람이나 뿔 만큼씩 새끼로 묶어 (32) 채워 두었다가 바짝 마른 다음에 달구지에 싣고 나무장에 팔러 나온 것을 시아버지는 사왔다. 부엌에 세 못, 그리고 헛간에 쌓아 둔다. 그럴 때마다 말했다. 불조심해라! 새끼로 엮은 방석에 앉아서 불을 때다가 (33) 하는 사이에 치마에 불이 붙었다. (34) 일어나니 당장에 얼굴에까지 불끼다.

----- 불이야!

----- 저것 봐! 저를 어째! 물! 물!

----- 물은 안 돼! 덩굴어라 덩굴어!

마당에 덩굴어서 불은 졌으나 화독으로 누워 있어야 했다. 헛소리가 불! 불! 이었다. 달포가 되어 일어났을 때는 정갱이와 턱에 흠집이 있었다.

전등이란게 생겨서 한개로 온 집안이 낮같이 밝아지고 그 딸은 일찌거니 외국 유학을 갔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보니 내 나라 내 고장이 그림다고 돌아왔다. 전열과 가스가 있는 집을 사서 외국살림 못지 않게 살림을 차려 놓으니 해방이 되자 가스는 안 나오고 전열선은 끊어 놓았다. 평생 만져 보지 못한 장작개비에 불을 붙이고 아궁이 속을 들여다 보아야 했다. 아궁이 속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끌어 들이는 귀신이 있는 것만 같아서 무섭기만 했다. 앞머리가 타는 노랑내에 기겁을 하는 동안에 매워서 찡그리는 얼굴이 그대로 주름살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서러워서 또 주름이 늘었다. 깡통 예술 석유 등잔을 사야 하고 양초도 사야 했다. 석유 풍로와 19공탄도 만져야 했다. 손톱 발톱의 매니큐어 커닝 손톱 발톱 사이의 검뎀을 꼬집어 낼 시간의 여유조차 없었다.

6.25에 남편을 납치당하고 1.4 후퇴에 여인 한참인 50고개를 70노파같이 되어 아들 딸의 부축을 받아가며 남하하다가 무너진 집 담벼락밑 거적자리에서 운명할 때 아들 딸에게 이렇게 유언했다.

----- ()

본문 D

고용불안에 너도나도 부업

a A호텔 홍보실 김모(31)대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저녁엔 ‘남 모르게’ 외국인 통신업체에 다니고 있다. 낮엔 호텔에서 일하고 퇴근 후와 주말엔 이 회사에서 영문 자료를 한글로 번역한다.

B그룹 인사와 박모(35)과장은 명함이 2개다. 회사에 적(籍)을 둔 채 인력관리회사를 차린 것. 그는 “아직 어설픈 단계지만 저녁엔 업계 사람들을 만나 사업정보를 귀동냥하거나 일감을 구한다”고 말했다.

‘낮엔 사원, 밤엔 사장님’. 월급이 줄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자기계발 차원을 넘어 본격적으로 부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독립을 준비하는 ‘두 직업’이 직장가의 새 풍속도로 고개들고 있다.

김대리는 “가뜩이나 넉넉지 않은 수입이 불황 속에 더 줄어 할 수 없이 부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 일에 소홀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낮에 더 열심히 한다”고 덧붙였다.

b 창업 준비도 느는 추세다. 박주관창업컨설팅㈜에 따르면 창업준비 직장인을 위한 창업도우미컨설팅 프로그램 참가자는 한달평균 5~6명.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사당동 근처에 조그만 생맥주 집을 차린 H그룹 계열사 韓모(40)차장은

“지금은 저녁에만 거들지만 언젠라도 사표를 내고 전업으로 매달릴 마음의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c 그러나 회사 입장에선 이런 분위기를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다. 아무래도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 때문. L사 인사담당 羅모 차장은 “근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의 사연을 알아보니 부업을 하고 있어 일단 경고를 줬다”고 말했다.

d 드물지만 사내 정보나 영업 비밀 등을 이용, 개인 이익을 챙기는 극단적 사례도 있다. 중견 무역업체에 다니던 李모씨는 자신이 알던 철강수입 루트 등의 정보를 챙겨 친지 명의로 개인회사를 차린 뒤 이곳을 통해 철강 수입을 대행하다 구설에 올라 최근 회사를 떠났다.

e 기업들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명함 2개 짚어 다니기도 ‘흔들리는 일터’ 대책 필요

중이지만 문제는 대부분 쉬쉬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파악한들 뚜렷한 대책도 없다는 것.

L사는 사규 복무규정에 ‘타업종 종사’ 조항을 만들어 “사원이 회사 허가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넣었다. 경중에 따라 견책·감봉·정직하고 심한 경우 권고사직까지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생활고와 고용불안 상황이 계속되는 한 ‘두 직업’ 현상은 앞으로 더더욱 확산될 게 불가피한 전망이다.

f 노동연구원 선한승 연구조정실장은 “직원들이 다른 일에 양다리를 걸치거나 회사 일과 무관한 자신의 능력개발에만 신경을 쓰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며 “기업들은 고용조정 후 남은 직원들이 불안감을 씻고 회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 <njkim@joongang.co.kr>